

2015 - 3월호

KB 중국금융시장정보



이슈진단

- 한중 FTA / 한중 FTA와 중국 소비시장 진출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장)

시장점검

- 외환시장 / 2월, 위안화 對달러 기준환율 및 시장환율 동반 상승세 시현
- 부동산시장 / 2월, 100개 도시 전월대비 주택가격 다시 하락

통화정책

- 중국인민은행 추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책 효과 가시화

금융산업

- 은행 / 중국 예금금리 자유화 연내 시행 예고
- 증시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은행의 주식중개 허용 고려 중

☆ 연구보고서 요약 / 2015년 중국 성장률 '바오치(7% 유지)' 가능성 점검

☆ 지난호 정보 (2013-5월호~2015-02월호)

한중 FTA와 중국 소비시장 진출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



한중 FTA 가서명의 의미

지난 2월 25일 한중 양국 정부가 한중FTA 협정문에 가서명 함으로써 지난 10여 년 간의 기나긴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한중 FTA 협정은 금년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을 거쳐, 연내에 한국 국회의 비준과,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금년 내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중FTA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첫째, 한중 FTA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양국은 상품분야에서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90%이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85%이상을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관세인하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활로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중FTA는 성숙기에 진입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가능성도 확보하였다.

셋째, 상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양국에 상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함으로써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이다. 그 일례로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거류증 발급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48시간 내 통관 원칙, 기업의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관 (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한·중 FTA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종래의 무역과 투자 중심 구조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지방간 협력 등 그동안 중국이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새로운 이슈에서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향후 한중간 경제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중 경제협력 3.0 시대의 개막

한중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 일대사건(一大事件)이 아닐 수 없다. 한중 양국 경제협력은 1992년 수교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초고속성장기를 맞이하였으며, 한중FTA 체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를 통해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FTA는 한중 무역 3,000억 달러, 상호 투자 1,500억 달러, 인적교류 1,000만 명의 ‘한중 경제협력 3.0시대’를 여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다.

한중 경제협력 3.0시대에는 세계 공장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중국은 2009년에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시장, 2012년에는 세계 최대 명품 시장과 세계 최대 해외관광 국가,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시장, 2014년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휴대폰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지난 2년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우리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중국 소비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그러나 중국 내수 소비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 소비시장은 여전히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양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상상태(新常态, New Normal)’의 경제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혁신(創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성장패러다임을 종래의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로 중국경제는 과거 두 자리 수의 고속성장에서 지난 3년간 7% 대의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고, 금년에도 7%의 성장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에도 중국 내 소비가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분배 구조가 변화하면서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5% 수준에서 2020년에는 5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한 신세대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새로운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은 개혁과 개방 이후 출생한 ‘80후(后)’, ‘90후(后)’라 불리는 신세대 소비자들이고, 이들은 부모들에 비해 높은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 오염된 환경에 처해 있는 중국의 신세대 소비자들은 가습기, 공기정화기, 환경 가전 등 환경 관련 제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신기술에 익숙한 신세대 소비자들이 제품의 스마트화와 인터넷 구매의 급속한 성장을 만들어 냈다. 건강과 식품안전 문제에 직면한 신세대는 다기는 주방 및 소형 가전제품, 건강 및 녹색 식품,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보다 풍요로운 소득과 빨라진 생활리듬에 맞추어 새로운 유행상품, 문화와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도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 창조자가 곧 승리자

신세대 소비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은 공급자도 유통업자도 아닌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선도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노키아의 퇴출이 이를 증명해 주었고, 최근에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이 ‘샤오미(小米)’와 아이폰에게 1위 자리를 내어준 것도 그러하다. 중국의 시장에서는 ‘시장 추종자’가 되어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신세대 소비계층의 소비욕구를 만들어 가는 ‘시장창조자’가 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중국 정부의 고민과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다면 중국 시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환경, 건강, 식품안전, 여가, Anti-aging, 신기술 등 중국 소비자의 니즈와 뉴노멀, 신형도시화,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대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중국제조 2025 계획, 인터넷+행동계획 등 중국 정부의 고민을 곱씹어 봄으로써 중국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2월, 위안화 對달러 기준환율 및 시장환율 동반 상승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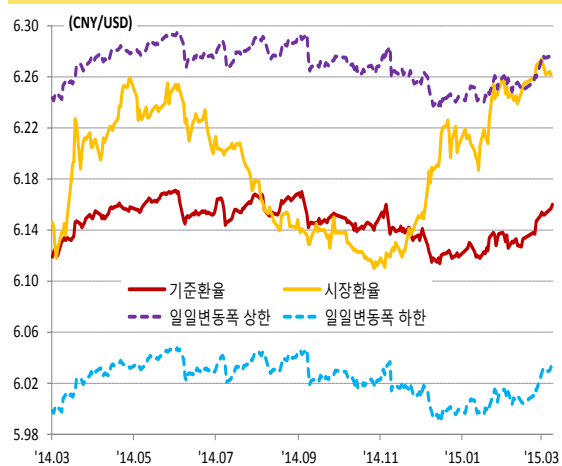
□ 2월 중순 이후, 위안화 對달러 시장 환율 및 기준환율은 동반 상승세 시현

- 2월 초~중순까지 박스권 등락을 지속하던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은 중순 들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3월 3일에는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이 달러당 6.2740위안을 기록하며 2012년 10월 이후 2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 특히 위안화 절하 기대 강화로 1월말 이후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은 줄곧 일중 변동폭 상한에 근접하여 변동하고 있음
- 동기간 인민은행 공시 위안화 對달러 기준환율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3월 11일 현재 달러당 6.160위안까지 상승

□ 통화 완화 지속 예상 등으로 당분간 위안화 환율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 최근 추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자금 이탈 및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 상승 지속
- 또한 인민은행도 그동안 급격한 절하로 인한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기준환율을 하향 공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환율을 상향 공시하고 있음
- 글로벌 IB들도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대한 통화정책 완화 지속 예상 등으로 당분간 위안화 對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위안화 환율 전망치를 상향 조정

[그림1] 위안화 對달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CEIC

[표1] 주요 IB 향후 위안화 환율 전망(공시환율 기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Barclays	6.35	6.38	6.40	—
JPM	6.32	6.36	6.40	—
BNP	6.12	6.10	6.20	6.10
GS	6.16	6.20	—	6.20
Citi	6.27	6.29	6.28	6.24
BoAML	6.22	6.27	6.27	6.18
HSBC	6.32	6.33	6.34	6.38
SC	6.28	6.19	6.12	—
Nomura	6.11	6.12	6.12	6.12
평균	6.24	6.25	6.27	6.20

자료: 해당 기관

*전망일: 3월 3일~6일

2월, 100개 도시 전월대비 주택가격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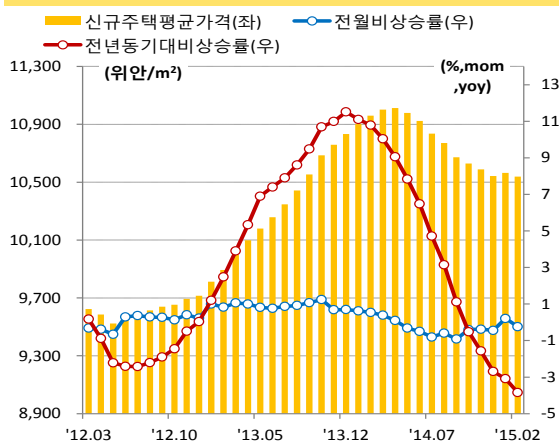
□ 2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다시 하락

- 2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m^2 당 10,539 위안으로 전월 대비 0.24% 하락하며 지난달의 상승세(+0.21%)를 이어가지 못하였음
- 100개 도시 중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전월(56개)대비 증가한 61개이며, 상승한 도시는 전월(44개)대비 감소한 39개임
- 4선도시¹(1월:-0.13%→2월:-0.60%)가 전월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고, 1선도시(1월:+0.67→2월:-0.02%)가 가장 적은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

□ 설연휴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가 전월대비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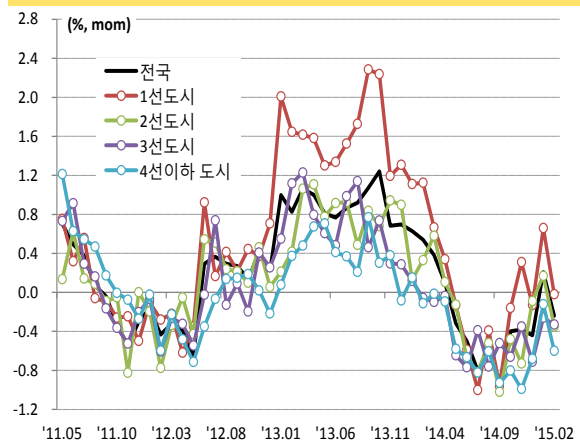
- 지준율 및 추가금리 인하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한 배경은 2월 설연휴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에 기인
- 반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3~4월은 1년 중 주택 수요가 가장 왕성한 시기 이므로 조만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대두
- 대도시 주택가격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도시는 공급 과잉으로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상반기 중에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조정이 이어지고 하반기에나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

[그림2] 중국 100개도시 신규주택가격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그림3] 중국 도시 규모별 신규주택가격 변화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¹ 중국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톈진; 2선 도시는 5개 1선 도시 외에 GDP 2,000억 위안, 일인당 GDP 1.4만 위안, 상주 인구 100만 명, 면적 100 km^2 , 주택판매가격 3,000위안/ m^2 이상인 도시; 3선 이하 도시는 상기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를 지칭

중국인민은행 추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책 효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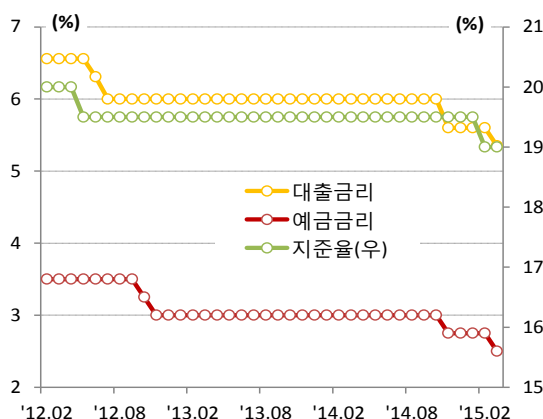
□ 인민은행, 작년 11월에 이어 기준예대금리 0.25%p 인하 조치 발표(2/28일)

- 1년만기 예금금리는 2.75%에서 2.50%로, 1년만기 대출금리는 5.60%에서 5.35%로 0.25%p씩 인하하였고,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금리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
- 인민은행은 작년 11/22일 28개월만에 기준예대금리를 인하(예금 0.25%p, 대출 0.4%p)를 단행하였고, 금년 2/5일에는 33개월만에 기준율을 0.5%p 인하한 바 있음

□ 기업 자금조달 비용 하락 등 금리 인하 효과 점차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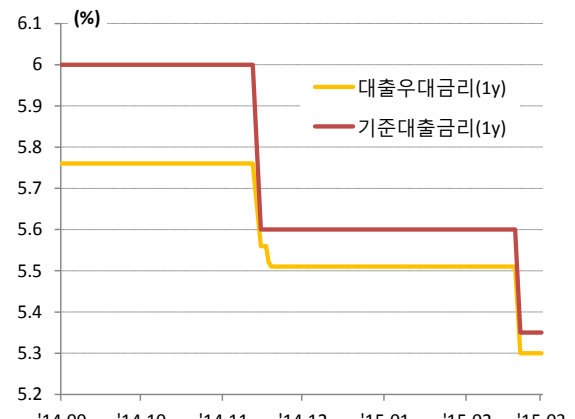
- 인민은행은 동 조치가 경제성장 및 물가변화에 대응하는 실질금리 수준을 유지할 위한 것으로 시장금리 및 실질금리 수준을 낮추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또한 예금이율 상한 확대 조치를 금융기관의 자율적 금리결정 메커니즘 확립 등 금리자유화를 위한 진일보로 평가하며 개인 및 기업 대상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등 추가적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이미 자유화된 상황에서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가 기준금리 인하에 순응하여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금리인하 조치가 시중은행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

[그림4] 중국 기준금리 및 기준율



자료: CEIC

[그림5] 대출우대금리와 기준대출금리 변화



자료: CEIC

중국 예금금리 자유화 연내 시행 예고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연내 예금보호제도 및 금리자유화 시행 예고

-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예금보호제도는 작년 말에 이미 의견수렴안을 거쳐 각계 각층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었음에 따라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아울러 금리자유화에 대해 금년 내에 예금 금리 상한선을 개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예금금리 수준이 민간이 원하는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힘
- 인민은행은 작년 말 예금금리 상한 허용폭을 1.1배에서 1.2배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추가로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한 바 있음

□ 현재 은행별로 예금금리 상한 허용폭 안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책정 중

- 예금금리 상한 허용폭을 1.3배로 확대한 이후 국유상업은행 등 대형은행들은 기준예금금리의 1.1배 수준에서, 주식제 은행 등 중형은행들은 1.2배 수준에서 예금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중
- 농촌합작사 등 소형은행들은 기준예금금리의 1.2~1.3배에서 예금금리를 책정하고 있고, 중국 내 외자은행들의 2/3는 기준예금금리 수준 혹은 기준예금금리의 1.1배 수준에서 예금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표2] 중국 위안화 예대금리 자유화 현황

대 상	시 기	내 용
위안화 대출	2003.8	농촌신용사의 대출금리 상한폭을 기준대출금리의 2배로 확대
	2004.1	상업은행과 도시신용사의 대출금리 상한폭을 기업 유형과 상관없이 기준 대출금리의 1.7배로 확대
	2004.10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금리 상한폭 제한 폐지 대출금리 하한은 기준대출금리의 0.90배까지 허용
	2012.6	대출금리 하한 허용폭을 기준금리의 0.7배로 조정
	2013.7	대출금리 하한 제한을 전면 폐지
위안화 예금	1999.10	상업은행 및 보험사의 고액 정기예금에 대하여 예금금리 결정권 허용
	2002~2003	예금금리 변동폭 확대를 점진적으로 시행
	2004.10	예금금리 하한폭 전면 개방, 상한은 기준예금금리로 규제
	2012.7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예금금리의 1.10배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
	2014.11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예금금리의 1.20배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
	2015. 2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예금금리의 1.30배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은행의 주식중개 허용 고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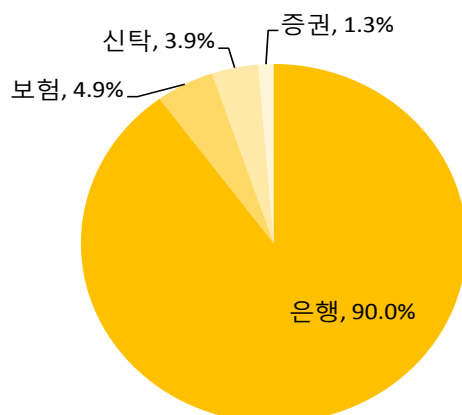
□ 금융시장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주식중개 허용 고려

- 1995년 제정된 “상업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신탁투자와 증권영업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국가가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함’이란 예외 조항을 삽입
- 이에 따라 중국건설은행이 지엔신(建信)신탁을, 교통은행은 차오인궈지(交銀國際)신탁을, 흥업은행은 썩예(興業)신탁을 자회사로 설립
- 또한 현재 중국, 공상, 건설, 농업, 교통 등 5대 국유상업은행을 비롯 초상은행과 국가개발은행 등 7개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증권 영업 허가를 보유

□ 직접금융 발전에 긍정적, 그러나 증권사들에게는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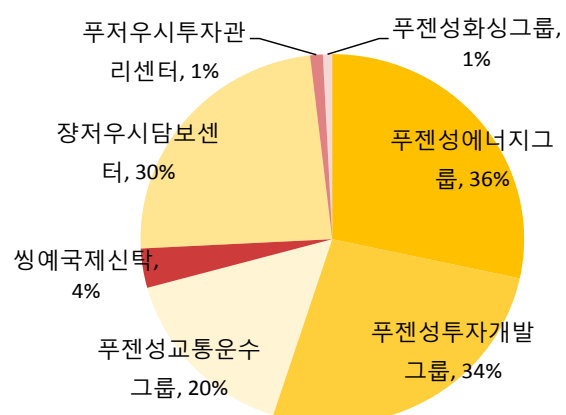
- 썩예(興業)은행은 화푸(華福)증권을, 교통은행은 화잉(華英)증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미 썩예은행은 산하의 썩예국제신탁(興業國際信託)을 통해 화푸증권 지분 4.35%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 중 가장 먼저 증권 관련 업무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시장에서는 은행에 대한 주식중개 영업이 허용될 경우, 이는 직접 금융의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중국 내 금융자산 중 은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증권사들에 대하여 경쟁 압력이 가중될 전망

[그림6] 중국 금융업종별 자산규모 비중(2011년)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7] 화푸(華福)증권 지분구조



자료: 21世紀經濟報道

2015년 중국 성장률 ‘바오치(7% 유지)’ 가능성 점검²

□ ‘바오빠(保八, 8% 유지)’→‘바오치(保七, 7% 유지)’

-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으로 2014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년보다 둔화
-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에 처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필요성 증대

□ 2015년 중국 경제 “바오치”의 긍정적 요인

- 경기하강 방지를 위한 유동성 조절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추가 통화 완화의 여지가 아직 충분
- 서비스업 비중 확대에 단위 성장률 당 고용 규모 확대
- 신형도시화 및 지역 균형 개발 추진을 통한 투자 확대

□ 2015년 중국 경제 “바오치”의 리스크 요인

-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둔화 및 수출 부진 지속 가능성
-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체 등에 따른 소비 부진 장기화 우려
- 낮은 물가 수준 지속 및 생산능력 과잉 심화 등에 따른 디플레 발생 가능성

□ 종합 평가

- 부동산 경기 위축, 구조조정, 생산 설비 과잉 등으로 성장률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성장 유지를 위한 정책 조치에 힘입어 2015년 7% 초반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 해외 IB들은 서비스 부문 성장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추진에 따른 성장 둔화가 지속되어 2015년 7% 내외의 성장을 전망

[표3]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 및 실적치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목표	7.0	8.0	8.0	8.0	8.0	8.0	8.0	8.0	7.5	7.5	7.5
실적	10.1	11.3	12.7	14.2	9.6	9.2	10.4	9.3	7.7	7.7	7.4

자료: CEIC

² 자세한 내용은 KB경영연구소 보고서→KB지식비타민→「2015년 중국 성장률 ‘바오치(7% 유지)’ 가능성 점검」을 참조하십시오.

2013-05월호 (창간호)

-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안화 사용 큰 폭으로 증가
- 차이나머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급증
- 중국 그림자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증대
- 부동산 가격 반등으로 경기부양 어려움 가중
-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증대

2014-04월호

- 위안화 절하로 TRF 매입 중국 기업 손실 확대 우려
- 토지판매량 급감 등으로 주택가격 둔화 지속
- 중국 국무원, 지방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 발표
- 위안화 對달러 가치 절하 추세 지속
- 호주, 지난 1년간 위안화 결제 규모 대폭 확대

2014-05월호

- 중국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성장률 하락폭 확대 우려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단했던 IPO를 재개
-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 미세조정 언급
- 경상수지 호전 등으로 향후 위안화 절하폭 제한 전망
- 싱가포르, 위안화 역외 시장 지위 상승

2014-06월호

- 유동성 경색 발생 1년 경과, 재발 가능성 감소
- 주택가격 감소세로 전환되며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 중국인민은행, 기준율 인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위안화 對달러화 가치 절하폭 전월대비 축소
- 중국 VC & PE 투자시장의 트렌드와 시사점

2014-07월호

- 위안화 국제화 어디까지 왔나?
- 反부패 캠페인 강화로 투자 위축 우려
- 위안화 對달러 가치 절하폭 전월대비 축소 지속
- 위안화, 중국(홍콩)과의 거래에서 제2의 결제 통화로 부상
- 일부 지방정부, 주택구매 활성화 조치 시행
- 中은감위, 예대비율 산정 기준 완화

2014-08월호

- 중국 상반기 경제 현황과 하반기 전망
- 한국 위안화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 강세 반전
- 중국 주택가격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폭 확대
- 중국인민은행, 하반기에도 선택적 긴축완화 지속 전망
- 상하이-홍콩간 주식 상호투자 개시 임박

2014-09월호

-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증시 투자 기회
- 위안화 對달러 환율 소폭 상승, 전월에 이어 상승폭 축소
- 중국 주택가격 4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
- 2014년 상반기 중국 상업은행 부실대출 규모·비율 동반 상승
- 최근 중국 증시 강세장 전환 기대 고조

2014-12월호

- 국내 중국인 관광객 증가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 최근의 중국 금융회사 M&A 동향과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시장 환율, 가파른 상승세 시현
- 11월, 중국 1선도시 전월대비 주택가격 상승세 전환
- 중국 예금보험제도 시행 임박
- RP 거래 담보물 회사채 등급 기준 강화로 주가 급락

2014-10월호

- 최근 대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환율, 박스권 등락 지속
- 9월, 중국 주택가격 전월대비 하락폭 확대
- 상하이 FTZ 內 외자은행 진출 활발
-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개시

2015-01월호

- 전환기의 중국 부동산 시장과 리스크 평가
- 2014년 위안화 가치, 페그 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절하
- 12월, 중국 주택가격 전월대비 하락폭 확대
- 예대비율 산정 기준 완화로 시중은행 대출 여력 확대
- 선강통(深港通, 선전-홍콩간 주식거래 허용 제도) 계획 중

2014-11월호

- 세계 2위의 무역금융통화로 부상한 위안화와 위안화 역외센터 위상 제고 방안
- 최근 중국 증시 강세장 전환 기대에 대한 평가
- 위안화 對달러 환율, 연초대비 절하폭 축소 지속
- 10월, 中 주택가격 23개월만에 전년동기대비 하락
- 3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 통화정책 연속성 유지 강조
- 17일, 후강통 거래 개시

2015-2월호

- HSBC의 촌진은행(村鎮銀行) 활용 고금리 대출사업 전략
- 2015년 중국 주식시장과 주요 이슈-중국 주식시장 3,000 시대의 개막
- 향후 위안화 對달러 가치 소폭 절하 예상
- 1월, 전월대비 주택가격 9개월만에 상승 반전
-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로 대출 증대 효과 기대
- 중국 안방(安邦)보험, 동양생명 인수 추진 중

※ KB중국금융시장정보 2013-06월호~2014-03월호는 www.kbfg.com/kbresea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중국금융연구센터

<http://www.kbfng.com/kbresearch>

연구위원 이정진, jungjin.lee@kbfng.com

발행인 윤종규

편집인 조경엽

발행처 KB금융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호 KB국민은행여의도본점

대표전화 02-2073-7114

발행일 2015년 03월 16일